

## ■ 총 괄

- 곡성군 재정규모는 397,149백만 원(일반회계 377,316백만 원, 특별회계 19,832백만 원)으로 전년 대비 8.7%증가하였음. 이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보통교부세 가내시 일정이 예산 편성시기 이전으로 앞당겨졌으며, 정부차원의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세목의 신설 및 증액에 기인함.
- 보통교부세는 곡성군 세입의 주요재원으로써 172,574백만 원을 편성함. 이는 글로벌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하방국면 추세로 2020년도 정부예산안 지방교부세는 약 5%p 감액 편성되었음. 우리군의 경우 약 2%p 감소하는데 그쳤으며, 부동산교부세의 경우는 12.9%p 상승한 16,283백만 원 전액 반영하였음.
- 순세계잉여금은 27,221백만 원을 편성함. 이는 2019년도 대비 4,865백만 원(↓15%) 감소한 것으로 재정집행을 제고와 2019년도 안정화 기금 적립에 따른 불용액이 대폭 감소 될 것을 고려하였음.

## ■ 자체재원

- 지방세는 23,304백만 원으로 2019년도 13,098백만 원 대비 77.9%p 상승한 것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 8,519백만 원을 반영함. 그 밖에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재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에서 고르게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.
- 세외수입은 12,513백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,302백만 원(↑11.6%) 증가한 규모로 작년 증가율과 동일한 상승폭으로 편성함.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생산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군민행복지수 1위를 지향점으로 농업소득향상, 노인·어린이·여성·청소년 복지증진,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업, 미래지향적 관광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

### ■ 농업소득 향상 분야

- 농민 공익수당 신설 및 공동급식, 여성 농업인 바우처사업 지속
-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, 신소득 작목 시범사업 확대
- 곡성형 시설하우스 개발, 노후 시설하우스 교체사업 지속추진
- 맞춤형 농기계 지원, 청년농업인, 귀농·귀촌인을 위한 사업비 반영

### ■ 어르신·어린이·여성·청소년복지증진 사업

-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료비 지원,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속추진
- 경로당 운영비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지원사업비 강화
- 어린이와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운영비를 상향 반영
- 신생아 양육지원금 확대,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### 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업

- 미래교육 재단 설립 및 운영비 지원으로 교육사업 체계적 전개
- 새로운 교육 트렌드에 부합한 신규 교육사업 발굴 및 지원
- 청소년 의회운영, 자율동아리 운영비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
- 농촌 인문교육 활성화 및 곡성 꿈놀자 학교 지속 운영

### ■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

- 공공주택사업 재정지원,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등 정주여건 제고
- 곡성·옥과·목사동 권역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본격추진
- 동화정원, 폐철도, 출렁다리 등 지역자원 활용 관광개발 본격가동
-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, 동약산 생태축 사업 등 국비확보 사업 본격추진